

# 무한한 가능성 가진 마음... 첫걸음을 디디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현장법사와 함께 길을 떠나는 손오공

당태종과 의형제까지 맺은 현장법사, 성대한 환송 가운데 불경 가지러 인도로 떠난다. 이전 물론 서유기의 이야기지, 실제로 몰래 국경 벗어나느라 온갖 고생을 다하셨는지?

그렇지만 중국 땅 벗어나니, 성대한 환송 속에 떠난 거나 몰래 떠난 거나 단숨에 똑같은 결과가 되네. 얼마 가지도 못해 요괴의 굴에 떨어져 시종은 잡아먹히고 신령의 도움으로 현장법사만이 신앙심 깊은 사냥꾼 백흥의 집으로 인도되네.

거기서 몸을 추스르고 백흥의 전승을 받으며 다시 인도로 출발하는 현장법사. 그런데 괴이한 목소리가 법사님을 부른다. 스승님 오셨다, 스승님 오셨다. 저를 구해주십시오. 제가 인도로 가는 먼 길 수행하오리다.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인가?

오백 년 동안 오행산 밑에 깔려있던 손오공의 목소리이다.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를 받아 불경 가지러 가는 길 모시기로 했다는 손오공의 말에 현장법사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

아득히 먼 길 함께해줄 제자가 생겼구나. 부처님이 불어 놓으신 '옴 마니 반메 훔' 적힌 부적을 떼어내니 손오공 50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손오공 기뻐 날란다.

현장법사 모시고 새 출발 하는 길. 부모도 당당하다. 천상계를 뒤집어엎었던 제천대성의 신위를 어떤 요괴가 감당할까?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겁 없는 여섯 도적들 덩어른다.

눈이라, 보고 기뻐하며(眼看喜) 귀라, 듣고 성내며(耳聽怒) 코라, 냄새 맡고 애착하며(鼻嗅愛) 혀라, 맛보고 생각하며(舌嘗思) 몸이라, 본디 근심하며(身本憂) 뜻이라, 보고 탐내려는(意見欲) 이름도 괴상한 여섯 도둑이 나온다. 도적들이 즐겨하는 흔히 나오는 대사 "모두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를 외치면서.

손오공 큰소리가 괜한 큰소리 아니지. 여의봉 뿔아들고 단배에 모두 때려죽이네. 그리고 현장법사 앞에서 으쓱댄다.

"내 솜씨 보셨죠? 어~뻬요?" 현장법사가 내 제자는 참 솜씨도 좋구나 칭찬하셨을리가 없지.

"불제자로서 어찌 그리도 자비심이 없느냐?" 큰 소리로 꾸짖었네. 모처럼 힘자랑하고 칭찬 기대했던 손오공. 발끈하고 빠져버린다.

에잇! 답답한 중! 못 따라가겠네! 원숭이 나라에 가서 다시 왕노릇이나 해야겠다. "빠이빠이~ 손공은 떠납니다."

근두은 타고 휩 날아가 버린다. 어찌할거나 어찌할거나. 현장법사 다시 끈 떨어진 박 신세가 되었구나.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서유기의 시작입니다.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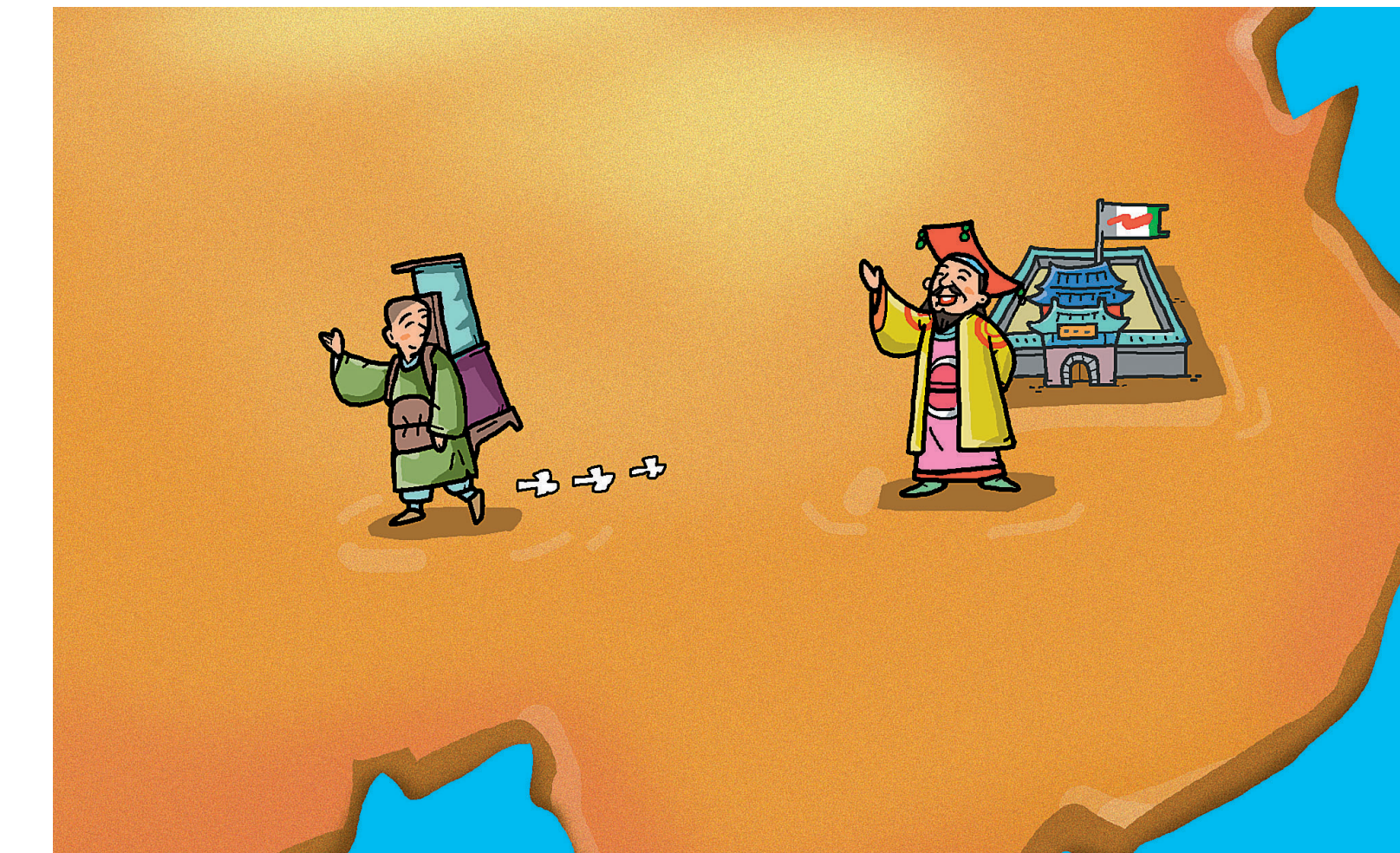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공이 현장법사 모시고 출발하는 대목이죠. 그 전에 살짝 손오공과 현장법사가 만나기까지의 기구한 이야기가 전개되기는 하지만, 거의 출발하자마자 손오공과 현장법사가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의 전개 가운데 현장법사가 당태종과 의형제를 맺었다든가, 그리고 성대한 환송 속에 인도로 출발을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국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에, 몰래 국경 넘느라 엄청 고생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유기가 그런 역사적 진실을 담아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소설은 소설인 겁니다. 이것과 경우는 좀 다르지만 또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삼국지(三國志)입니다. 삼국지는 서유기보다 훨씬 더 역사적 사실과 혼동될만한 요소를 더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분명 삼국지는 소설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즉 촉한(蜀漢)을 한(漢)왕조의 정통을 잇는 국가로 보는 입장에서 꾸며진 소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는 사람들이 세 번, 울분에 차서 책을 집어 던지게 만든다는 소설이 바로 삼국지입니다. 어쩌서 세 번이나구요? 유비가 죽는 대목, 관우가 죽는 대목, 그리고 제갈량이 죽는 대목에서 책을 집어 던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충성심과 의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세 대목에서 책을 집어던지게 만들 정도로,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각색하여 소설로 꾸민 것이 삼국지인 것입니다. 그렇니까 역사적 사실과 소설로서의 삼국지가 다르다는 것은 바르게 보아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삼국지의 작

### 손오공은 마음원숭이(心猿)

### 현장법사도 인간군상을 대표

### 피동적인 삶 거부에서 수행 출발

품성을 평가절하 한다든가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삼국지에 비하면 서유기는 훨씬 사실성과 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는 더더욱 없겠지요. 그리고 성대한 환송을 받고 떠났든, 몰래 고생하며 국경을 넘든, 몇 걸음 못 가서 똑같은 결과가 되고 마니까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앞글에 말한 대로 요괴 굴에 떨어져서 따라왔던 시종들은 처참하게 요괴의 뱃속에 장례를 치르고 말죠. 현장법사는 워낙 청정하여 요괴가 쉽게 잡아먹지 못하고, 태백금성이라는 신령님이 인도를 하여 백흥이라는 사냥꾼에 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흥의 전승을 받으며 다시 인도로 출발하려는 길에 손오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생략하지요. 지금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서유기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우리가 생각한 손오공의 정체는 무엇이었지요? 인간의 마음, 아직은 어리석음 속에 헤매고 있지만 깨달아 부처를 이룰 마음을 형성화한 것이라 했지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원숭이처럼 까불거리고 초췌거리는 마음, 그래서 마음 원숭이(心猿)라 부르는 그 마음이라 했습니다. 현장법사가 경을 가지러 가는 것은 그 마음 원숭이를 길들여 올바른 수행으로 나가는 과정을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불법 수행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법사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개인 현장법사가 아닙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손오공은 그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특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인간의 지능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른 모든 동물과 인간을 구별 짓는 중요한 특성은 바로 인간의 지성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교에서 본다면 그 지성이 오히려 길을 잡지 못하고 헤매 때의 상태는 '어리석음'이라 불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의 중요한 측면이며, 인간이 인간이라 불리게 할 수 있는 지성(知性), 지능(知能), 앎은 바로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은 깨달으면 지혜를 이룰 수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마음, 아직은 어리석은 마음이 올바른 수행을 첫걸음을 디디는 대목이 바로 여기인 셈입니다. 삼국지를 읽는 사람이 책을 집어 던지는 세 번의 대목이 있다면, 서유기를 읽은 우리는 이 대목에서 특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서유기가 이런 책이었어?' 하고 말이지요. 이 대목의 제목이 바로 우리를 반짝 정신 들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목이 뭐냐구요? 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한자 그대로 써드려 볼까요? 심원귀정 육적무중(心猿歸正 六賊無松)입니다. 삼패선생 한문 실력 자랑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불교 용어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바로 눈치를 챌 수 있는 말이지요 써드려 본 거예요. 애궁, 왜 한자라면 손오공 근두은 불러 타고 달아나듯 기겁을 하는 분들이 어리 많은지... 얼은 우리말로 옮겨 드릴게요. "마음 원숭이가 바른 길로 돌아서니, 여섯 도둑이 자취가 없구나"입니다. 손오공이 어떤 존재인지, 서유기에 담긴 천고의 비밀을 여지없이 폭로하는 대목이지 않아요? 그동안 함부로 날뛰면서 천궁을 어지럽히고, 부처님한테 잡혀서 오행산 아래 갇혀 있던 손오공, 불쌍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이제 제 정신을 차렸네요. 올바른 길로 돌아섰네요. 우리들도 축하해 줘야겠지요? 아니 자축해야 하겠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제 길로 들어선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제 길로 들어섰을 뿐,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네요. 올바른 방향은 잡았지만, 그동안 쌓여온 오랜 세월의 업장과 습기가 어찌 하루 아침에 사라지겠어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닦아 나가야 하는 멀고 먼 길... 그것이 수행의 길이었지요. 선가(禪家)에서 "한번 뛰어 관바로 부처 땅에 들어간다" (一超直入如來地)라 하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그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直指人心 見性成佛)하지요? 조사님들의 말씀에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들이 어리석은 우리 고려하느라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어리석음은 두껍고도 두껍다는 탄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두꺼운 어리석음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첫 걸음, 첫 걸음 떼어놓으면 바로 거기부터 부처 땅이라는 생각으로 몰려서 지는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오공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첫걸음을 떼어 놓자마자 여섯 도둑이 달려드네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들이 각각 보고 듣고 하는 작용을 일으켜,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하면서 달려드네요. 마음이 한번 딱 각오를 다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는데, 웬 방해꾼들이 이리도 많은가요? 그 방해꾼들을 통틀어 '여섯 도둑' (六賊)이라 한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서유기는 마음을 닦아나가는 수행의 첫 장에 물건을 여섯 도둑들이 날뛰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도둑은 바로 우리의 감각인 눈, 귀, 코, 혀, 몸, 뜻이요. 그 여섯 도둑들이 마음을 흠쳐가지요. 흠쳐가지고 도둑이 하는 것이요. 그렇게 흠쳐진 마음은 보고 듣고...하는 데 팔리고, 거기에 휘둘러 기뻐하고 성내고 애착하고... 그렇게 한세상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 나가다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요. 슬픈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섯 도둑에 이끌려 삶을 당하고 있을 뿐이지요.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동적으로 이끌려 사는 슬픈 삶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마음이 제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주인공으로 바로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여섯 도둑에게 마음을 도둑맞는 일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손오공이 여섯 도둑을 물리치는 이야기로 그려낸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투손오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출발일: 2월 16일
스리랑카 8일	출발일: 11월 28일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12월 5일, 12월 12일

###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향사출발

원불 원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티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제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룸베나-스라바스티-산키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일루버라-캔디

스리랑카 원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미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스라바스티-룸베나-카트만두-니가르코트

###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양드록추-간체-시가체

티베트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정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카투만두-니가르코트

동티베트 9일

성도-문찬-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딩-성도

### 마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력)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펜 6일

###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